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정신계의 자기 주처를 믿고 세상을 한번 새롭게 걸어보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시급하다는 게 뭔가? 우리의 마음을, 정신계를 모르기 때문에, 지구라는 우리의 집, 공기 주머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들이 차원이 높아지지 못해서 지구에서 에너지가 부족하다 해도 그 에너지를 끌어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 된단 얘깁니다. 이 허공에도 모든 생명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끌어 쓸 수 있다는 사실은 부처님께서 여러분한테 벌써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대로 이 자리에서…, 삼천 년 전도 그대로 이 자립니다. 후도 없고 전도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가정을 지켜 나가고 우리 사회를 지켜 나가는 데도 이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도리를 확고부동하게 알고 내 마음이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벗어나는 마음이라야 체가 없는 데는 체가 없는 대로 용무를 하고, 용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데서 작용하는 거를 용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작용도 할 수 있고 보이는 데서 작용도 할 수 있고 이래야만이 이게 평등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단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볼 때에, 전 세계로 봐도 그렇지마는 더더욱 한 가정과 같은 우리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중에서도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들 해 보셨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독교나 가톨릭교 불교, 모두가 타의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나도 전자에 천주교에 입교를 해서 좀 다녀 봤습니다마는, 자기가 잘못해 놓고서는 고해성사를 한다는 게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하고 발걸음을 걷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됐습니다마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타의에서 구한다면 내 어머니 못났다고 잘난 딴 어머니 찾는 거와 똑같습니다. 못났든지 잘났든지 자기가 자기 몸을 움죽거리게 하고 가게 하고 오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억겁 동안 진화를 시켜서 형성시켰고요. 지금도 형성시켜서 이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참 자기를 못마땅해하고 자기 심봉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아서 자기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손해도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죠.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오든지 불교인이 오든지 다 똑같이 대답해 줍니다. 내가 대답하는 거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다 더불어 같이 한 거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주님은 자기 주처에 있는 것이지 딴 데, 타의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제 나무에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려보내고 또 태양력이나 공기력을 흡수해서 내려보내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익이 있고 공덕이 있는 거지 어떻게 이 뿌리가 저 뿌리를 믿습니까? 이 뿌리가 저 뿌리를 믿어서 에너지가 온다면 어유,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진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지식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나무가 네 뿌리를 믿어서 푸르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걸랑 제 나무에서 익혀라. 제 나무에서 익는다면 그 무르익은 과실의 맛은 일체 만물만생이 다 먹고도 되남느니라." 과실 하나 가지고도 말입니다. 그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종자 하나를 심어서 그 종자가 한 나무에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열리면 다들 먹이고도 그 종자는 되남죠? 끝 간 데 없이 먹이고도 되남죠?

그러니 천당 지옥이 따로 있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짊어지워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땐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내놓고 남한테 보시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진짜 자비한 보시라면 길에 가다가도, 옹기종기 애들을 데리고 추운 데서 떨고 있거나 더운 데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거나, 쫓겨나서 집을 얻으려도 돈이 모자라서 못 얻고 오갈 데 없이 헤맬 때 그냥 아무거라도, 하다못해 재를 지내 달라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주는 게, 그게 재를 잘 지내 주는 일이죠.

그게 진짜 보시지, 내가 한다는 게 없이 해야 보시지 내가 한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하고 보시하는 건 보시가 하나도 안 돼요. 자기한테 요다음 생에, 세세생생의 예금 통장이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같이 살고 더불어 둘이 아닌 까닭에, 나를 내가 도운 건데, 나를 위해서 내가 한 건데 누구한테 잘했다 못했다 하겠습니까? 가게 물건을 사러 갔을 때에 물건을 하나 샀으면, 얼마짜리든 돈을 주고 물건을 샀으면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단 얘깁니다.

이런 거와 같이 여러분은 정신계를 좀 더 추구해서, 나를 지금 이끌어 가는 놈이 누군가, 나를 공부하게 하는 놈이 누군가, 나를 군대에 입대하게 하는 놈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있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누가 갖다 넣은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 가는 것도 아니죠. 행복을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서 행복한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 말아라 한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생겼으니까 하게 된 거죠. 그러니 그렇게 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냐는 얘깁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속에,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는 천차만별의 말, 뜻, 행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랙홀이라는 그 큰 별성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이 지구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행성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태양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부처님께서는 "만 명이 깨달아도 일 불이니라. 그 일 불의 마음은 바로 내가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혹성이 팽창이 되거나 타 버린다거나 이래도 내가 그것이 되는 까닭에 내가 나를 죽이는 법은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수명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이 한 가지를 비롯해서 일체 만법을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억겁을 통해서 나온 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다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근본적인 나!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벌어졌다. 나로 인해서, 바로 참나로 인해서 껍데기인 나가 지금 기계처럼 움죽거리고 있다. 그러니 움죽거리는 것도 그 속에서 작용을 해서 움죽거리게 하니까 내가 움죽거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음이 발전되면…, 옛날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저쪽 군사는 천 명인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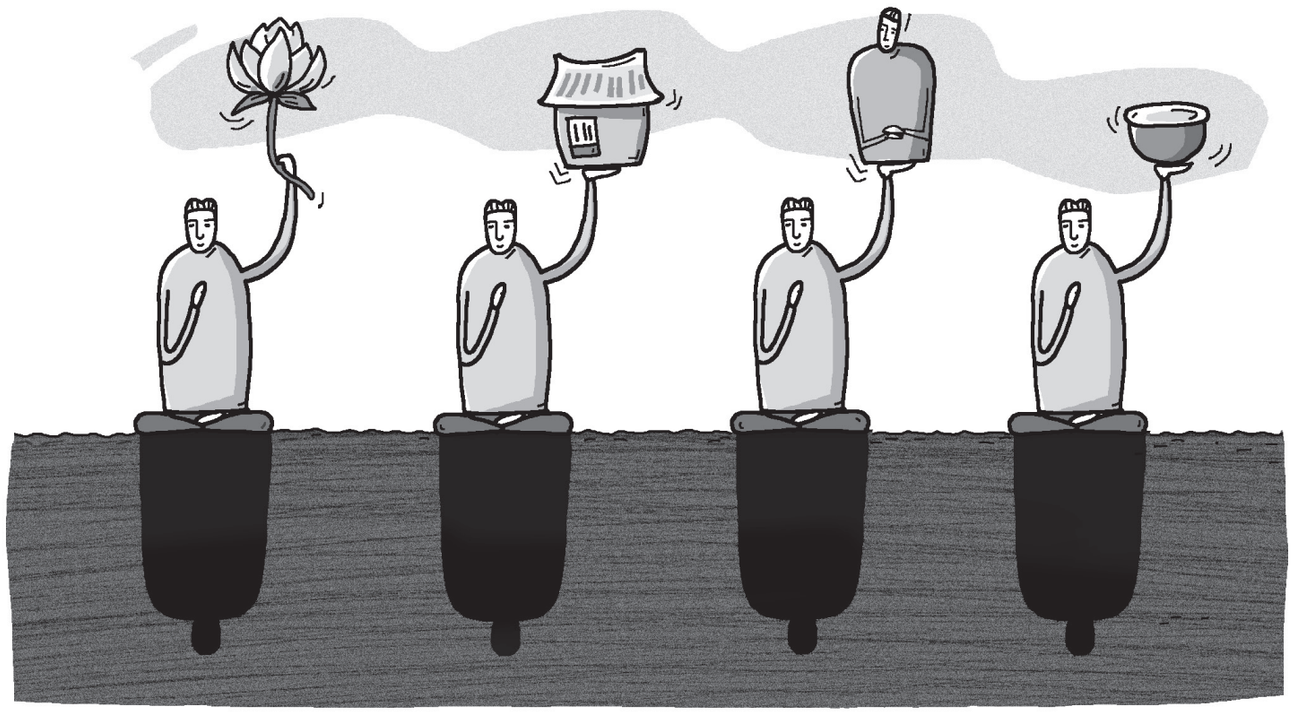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